8. 다층 퍼셉트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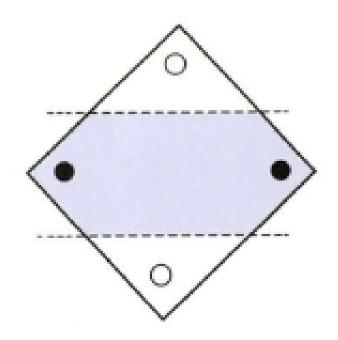
서론

- 앞서 종이 위에 각각 엇갈려 놓인 검은점 두 개와 흰점 두 개를 하나의 선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
- 언뜻 보기에 해답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.
- 인공지능 학지들은 인공 신경망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XOR 문제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.
- 이 문제 역시 고정관념을 깬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해 결점이 보였습니다.



서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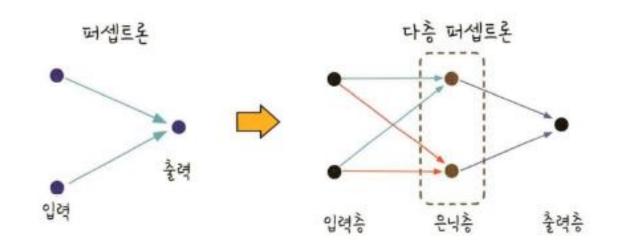
▶ 바로 선을 2개 그어주는 것이었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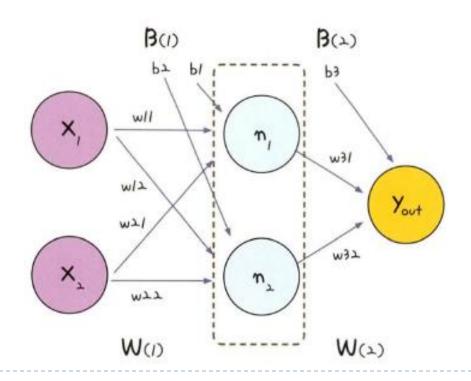
서론

-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퍼셉트 론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▶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숨어 있는 층, 즉 은닉층(hidden layer)을 만들면 됩니다.





다층 퍼셉트론이 입력 층과 출력층 사이에 숨어 있는 은닉 층을 만드는 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과 같습니다.





- 가운데 숨어 있는 은닉층으로 퍼셉트론이 각각 자신의 가중치 (w)와 바이어스(b) 값을 보내고, 이 은닉층에서 모인 값이 한 번 더 시그모이드 함수(기 호로 σ라고 표시합니다)를 이용해 최종 값으로 결과를 보냅니다.
- ▶ 은닉층에 모이는 중간 정거장을 노드(node)라고 하며 여기서는 n_1 과 n_2 로 표현하였습니다.



- ▶ 위 두 식의 결화값이 출력 등으로 보내집니다.
- ▶ 출력층에써는♥♥₩2세꾀炤에도 함수를 통해 y 값이 정해집니다.

$$y_{out} = \sigma (n_1 w_{31} + n_2 w_{32} + b_3)$$



- ▶ 이제 각각의 가중치(x)와 바이어스(b)의 값을 정할 차 례입니다.
- ▶ 2차원 배열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 니다.
- ▶ 은닉층을 포함해 가중치 6개와 바이어스 3개가 필요 합니다.

$$W(1) = \begin{bmatrix} w_{11} & w_{12} \\ w_{21} & w_{22} \end{bmatrix} \quad B(1) = \begin{bmatrix} b_1 \\ b_2 \end{bmatrix}$$

$$W(2) = \begin{bmatrix} w_{31} \\ w_{32} \end{bmatrix} \qquad B(2) = [b_3]$$



XOR 문제의 해결

- 앞서 우리에게 어떤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.
- 이를 만족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조합은 무수히 많습니다.
- ▶ 이를 구하는 방법은 8장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.지금 은 먼저 다음과 같이 각 변수값을 정하고 이를 이용해 XOR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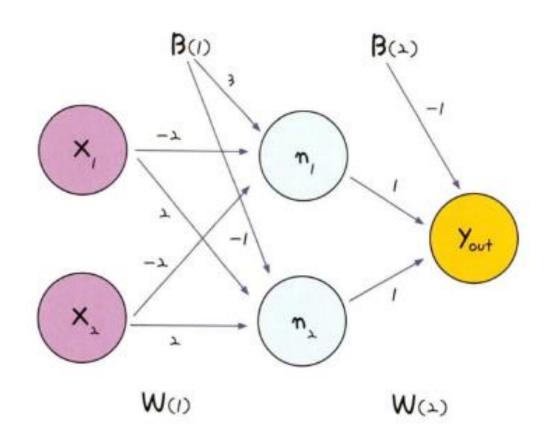
$$W(1) = \begin{bmatrix} -2 & 2 \\ -2 & 2 \end{bmatrix} \quad B(1) = \begin{bmatrix} 3 \\ -1 \end{bmatrix}$$

$$W(2) = \begin{bmatrix} 1 \\ 1 \end{bmatrix} \qquad B(2) = [-1]$$



XOR 문제의 해결

▶ 이것을 도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



XOR 문제의 해결

▶ 이제 x_1 의 값과 x_2 의 값을 각각 입력해 y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나오는 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.

X ₁	X ₂	n,	n ₂	Yout	우리가 원하는 값
0	0	σ(0 * (-2) + 0 * (-2) + 3) = 1	$\sigma(0*2+0*2-1)=0$	$\sigma(1*1+0*1-1)=0$	0
0	1	σ(0 * (-2) + 1 * (-2) + 3) = 1	$\sigma(0*2+1*2-1)=1$	$\sigma(1*1+1*1-1)=1$	1
1	0	$\sigma(1*(-2)+0*(-2)+3)=1$	$\sigma(1*2+0*2-1)=1$	$\sigma(1 * 1 + \frac{1}{1} * 1 - 1) = 1$	1
1	1	$\sigma(1*(-2)+1*(-2)+3)=0$	σ(1 * 2 + 1 * 2 - 1) = 1	$\sigma(0 * 1 + 1 * 1 - 1) = 0$	0

▶ 숨어있는 두 개의 노드를 둔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 XOR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.



- 이제 주어진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이용해 XOR 문제를 해결하는 파이씬 코드를 작성해볼까요?
- ▶ 먼저 표에서 n₁의 값을 잘 보면 입력 값 x₁, x₂가 모두 I 일 때 0을 출력하고 하나라도 0이 아니면 I을 출력하 게 되어 있습니다.
- ▶ 이는 AND 게이트의 정 반대 값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.
- ▶ 이를 NAND 게이트라고 부릅니다.
- ▶ 그리고 n_2 의 값을 잘보면 x_1, x_2 에 대한 OR 게이트에 대한 답입니다.



▶ NAND 게이트와 OR 게이트 이 두 가지를 내재한 각 각의 퍼셉트론이 다중 레이어 안에서 각각 작동하고 이 두가지의 값에 대해 AND 게이트를 수행한 값이 바 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_{out} 임 을 알 수 있습니다.



정해진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겠습니다.

```
import numpy as np
w|| = np.array([-2, -2])
w|| = np.array([2, 2])
w| = np.array([1, 1])
b|| = 3
b| = -1
b| = -1
```



- ▶ 이제 퍼셉트론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.
- ▶ 0과 I 중에서 값을 출력하게 설정합니다.

```
def MLP(x, w, b):
    y = np.sum(w * x) + b
    if y <= 0:
        return 0
    else:
        return I</pre>
```



▶ 각 게이트의 정의 에 따라 NAND 게이트, OR 게이트, AND 게이트, XOR 게이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.

```
def NAND(x1,x2):
    return MLP(np.array([x1,x2]),w11,b1)

def OR(x1,x2):
    return MLP(np.array([x1,x2]),w12,b2)

def AND(x1,x2):
    return MLP(np.array([x1,x2]),w2,b3)

def XOR(x1,x2):
    return AND(NAND(x1,x2),OR(x1,x2))
```

▶ 이제 x_1 과 x_2 값을 번갈아 대입해 가며 최종 값을 출력 해 봅시다.

```
if __name__ == '__main__':
    for x in [(0,0), (1,0), (0,1), (1,1)]:
        y = XOR(x[0], x[1])
        print("입력 값:" + str(x) + " 출력 값:" + str(y))
```



▶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```
import numpy as np
w| | = np.array([-2, -2])
w| | = np.array([2, 2])
w| = np.array([1, 1])
b| = 3
b| = -1
b| = -1
def MLP(x, w, b):
    y = np.sum(w * x) + b
    if y <= 0:
        return 0
    else:
        return 1</pre>
```

▶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```
def NAND(x1,x2):
 return MLP(np.array([x1, x2]), w11, b1)
def OR(x1, x2):
 return MLP(np.array([x1,x2]),w12,b2)
def AND(x1, x2):
 return MLP(np.array([x1,x2]), w2, b3)
def XOR(x1,x2):
 return AND(NAND(x1, x2), OR(x1, x2))
if name __ == '__main___':
 for x in [(0,0),(1,0),(0,1),(1,1)]:
  y = XOR(x[0], x[1])
  print("입력 값:" + str(x) + " 출력 값:" + str(y))
```

▶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.

```
□ 입력 값: (0, 0) 출력 값: 0
입력 값: (1, 0) 출력 값: 1
입력 값: (0, 1) 출력 값: 1
입력 값: (1, 1) 출력 값: 0
```



- ▶ 우리가 원하는 XOR 문제의 정답이 도출되었습니다.
- 이렇게 퍼셉트론 하나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은닉 층을 만들어 해결했습니다.
- 은닉층을 여러 개 쌓아올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뉴런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고를 낳는 사람 의 신경망을 닮았습니다.
- 그래서 이 방법을 인공 신경망이라 부르기 시작했고, 이를 간단히 줄여서 신경망이라고 통칭합니다.



Q&A